

# 大巡思想의 信과 信念體系

朴昇植\*

## 目次

I. 序論	IV. 大巡思想의 信과 信念體系
II. 信의 意義	1. 大巡思想의 信
III. 宗教와 信念體系	2. 大巡思想의 信念體系
1. 宗教와 信	3. 大巡思想의 信念體系類型
2. 信念體系의 意義	V. 結論
3. 信念體系의 類型	

## I. 序論

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신조(信條)인 삼요체(三要諦)의 하나인 信과, 종교의 信念體系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대순사상의 삼요체는 誠·敬·信인데, 誠과 敬에 관해서는, 本論叢 제9집과 제10집에서 이미 연구한 바 있다. 誠·敬·信은 儒敎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으로서, 인간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윤리적 가치이다. 誠은 유가(儒家)에서는 인간사회에서 기본적인 道로 天理 자체라 한다. 誠을 온전히 실행하는 것은 天道로서 인간이 추구해야할 최고의 가치이며, 인간은 天道에 이르기 위해서 誠을 실행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誠은 천리의 본연으로 진실 자체로서 최상의 道로서, 인간은 천리를 따르는 진실무망(眞實無妄)을 위해서 誠을 실행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 행정학 박사

유가에서는 인간이 천리를 깨닫고 본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수양을 해야만 하는데, 敬이 수양을 하는데 준수해야 할 기본원리라 한다. 誠은 자연과 인간의 근본인 天理이며, 敬은 인간이 誠에 이르는데 준행하여야 할 원리라는 것이다. 誠은 내적인 것이고, 敬은 외적인 것으로 상호 표리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실행하여야 한다. 誠과 敬은 體와 用으로 誠과 敬이 일치할 때에 君子之道를 행할 수 있으며, 君子之道를 성실하게 실행하여야 이상적 인간상인 聖人の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信은 어떠한 것을 굳게 믿고 실행하는 것으로, 誠과 敬을 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인간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뜻을 세우고 굳은 의지를 가져야 한다. 誠과 敬이 인간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실행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도 誠·敬·信이 신앙생활(수도)을 하는데, 근본이라 하여 三要諦라 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수도를 하는데 誠·敬만으로는 미흡하고, 굳게 믿는 마음을 가져야 올바른 수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종교는 본질적으로 信念體系이며 궁극적 價値體系이다.<sup>1)</sup> 종교적 신념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상위에 있는 절대적 가치이다. 신앙은 자신이 믿는 종교가 완전한 진리이며, 인간생활에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信의 의의와 종교의 신념체계를 파악하고, 대순사상의 信과 신념체계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信의 意義

信은 ‘說文’에 “信誠也 从人言”이라 하였고, 許慎의 ‘說文解字註’에서는 “信誠也 从言成聲”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段王裁解字註에서 “人言則無不信者는 故从人言이라 해석하였다.<sup>2)</sup> 信과 誠은 인간의 언어로 소리라 한다. 信은 인간의 말로서 誠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信의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誠의 의미, 그리고 신의 일반적 의미라 할 신념

1) 尹以欽, 韓國宗教研究 : 卷 I (서울:集文堂, 1986), p.9.

2) 沈佑燮, “中庸의 誠思想에 관한 研究”, 道源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洋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83), p.153.

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는 인간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형성하는 문화와 역사적 경험을 미래에 전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도구와 함께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본이 되어 왔다. 인간과 인간은 언어에 의해 의견교환을 하여 결합하며, 생성된 지식을 전달한다. 인간은 언어에 의해서 공동생활을 통한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였으며 지식을 전달하였고, 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함으로써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어 왔다.<sup>3)</sup>

언어활동은 말하는 사람(발신자)이 상대방(수신자)과 말을 주고받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언어 기호로 바꾸고, 듣는 사람은 말로 전달된 기호를 해독하여 내용을 이해한다. 의사전달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내용 등이 포함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발신자와 수신자간에 이루어지는 언어를 통한 의사전달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다.<sup>4)</sup> 언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지시가 주요한 기능이다. 발신자와 관련된 기능은 지시기능, 또는 의사전달기능이라 하며, 발신자의 기분과 감정 상태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표현기능이라고도 한다. 언어는 발신자의 생각과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말을 하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수신자와 관련된 기능은 유발기능(호소기능)이다. 말을 하는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시하여,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한다.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어떠한 것을 호소하거나 요구하여 특정한 행동 및 태도를 갖게 하려 하는데, 이러한 것을 호소기능이라 한다. 호소기능의 대표적인 예는, 광고, 선전, 연극 등이다.

한편 언어발생적 차원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교감기능(交感機能)이 있다. 교감기능은 언어를 통한 접촉행위, 또는 언어적 접촉을 형성하고 유지 및 종단하는 기능을 말한다. 교감기능은 어머니가 언어의 뜻을 모르는 유아에게 말을 하였을 경우, 유아는 어머니의 뜻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기능이다. 그리고 동물세계에서도 음성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도 교감기

3) 金芳漢, 언어학의 이해(서울 : 민음사, 1994), p.20.

4) 송완용, 언어학 기초이론(서울 : 신아사, 1996), pp.15-22.

능이다. 교감기능은 기호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생기는 언어기능으로 본능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언어에는 기호체계에 관련된 기능인 분석기능과, 정보 자체에 중점을 두는 시적 기능(미학적 기능) 등이 있다. 분석기능은 전문분야에서 정의된 용어들과 용어의 기본 정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언어의 시적 기능을 통해 다른 언어 기능들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언어가 시적 및 미학적으로 표현될 때에, 호소나 정보전달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信은 誠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誠은 言과 成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言에 의미가 있고, 成은 음부(音符)만 취한 것이라 한다.<sup>5)</sup> 誠은 말(言)과 이룬다(成)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말을 통해 어떠한 일을 성사시킨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말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전달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성취나 완성은 진실한 말을 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뜻에 동의하게 하여야 가능하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마음과 뜻을 교류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때에 바른 마음과 뜻을 갖고 있어야 성취할 수 있다.

誠은 유가에서 가장 중시하는 최고의 덕목으로,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어야 인간의 본성을 발휘할 수 있다(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고 하였다. 인간이 지극한 정성을 갖고 善을 택하여 굳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誠之者의 태도라 한다. 이러한 誠을 실행하려는 것을 信과 관련하여 보면, 인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言行一致가 되어야 한다. 論語 子路篇에 “말을 했으면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中庸에 “말은 반드시 행위를 돌아보아야 되고, 행위는 말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말을 하기 전에 충분히 사고하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周易 繫辭上에 “군자가 집에서 생활할 때에는 말을 선하게 하므로, 이것이 천리 밖에서도 감응하니, 하물며 가까운데 있어서는 말할 것도

5) 沈佑燮, 前揭論文, p. 139.

없다.(子曰 君子居其室 出其言善 則千里之應之 況其邇者乎)”고 하여, 참된 군자의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論語 學而篇에 “벗과 사귀되 말에 信이 있으면 비록 그가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웠다고 하리라.(子曰 君子居其室 出其言善 則千里之應之 況其邇者乎)” 하였다. 이 말은 배움이 부족하더라도 믿음을 주면 학문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을 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말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은 참되고 믿음을 주어야 하며, 행동은 돈독하고 공경스러워야 한다.(子曰 言忠信 行篤敬)”고 하였다. 인간의 말은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행동은 믿음을 받을 수 있게 돈독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공자는 정치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로부터 믿음을 받는 것이라 하였다. 공자는 子貢이 정치에 관하여 물었을 때, “식량을 풍부하게 하고 국방을 견고하게 하며, 이것을 백성들이 신뢰하는 일이라 하였다. 그리고 부득이해서 하나를 빼려면 세 가지 중에서 국방을 빼고, 또 하나 빼려면 식량을 빼라 하였다. 예로부터 죽음이 있지만 백성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나라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라 하였다. 국가를 통치하는데 있어서도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信은 신념이라 할 수 있다.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을 말하는데, 신념은 어떤 事象이나, 命題, 學說 등을 가장 적합한 것, 또는 진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심리적 태도를 말한다. 심리학에서는 개인이 접촉하는 세계의 어떤 측면에 대한 감정, 지각, 인식, 평가, 행동경향 등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세를 태도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신념은 그 인지적인 요소 및 측면을 형성한다. 태도(attitude)에는 정서적 성질과 안정성(지속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태도는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심적, 또는 생리적 대응이다. 사람이 어떤 자극이나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지각이 생긴다.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지각과 대응이 다르다. 인간의 태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신념은 어느 정도까지 자명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태도는 지속적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인간 활동을 촉

진하는 힘이 있다.<sup>6)</sup>

태도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태도는 감정적 성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념이나 의견,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신념이 태도를 형성하느냐, 태도가 신념을 형성하느냐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한 신념은 서로 관련을 가지고 전체로서 체계를 이루지만, 그 구조에서는 개인차가 있어 고도로 조직화되어 안정성 있는 신념체계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개개의 신념이 관련이 적어서 신념체계가 미약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신념은 중심적인 것에서부터 말초적인 것까지 매우 다양한데, 중심적인 것은 잘 변하지 않지만, 말초적인 것은 변화가 쉬운 편이다. 신념은 객관적 사실이나 진실과 일치 정도가 다양하여 때로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 또는 逸脫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俗信, 迷信, 고정관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없게 한다.

### Ⅲ. 宗教와 信念體系

#### 1. 宗教와 信

종교를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종교에 관한 정의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종교 현상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고, 종교 자체가 매우 복잡하여 종교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그리하여 종교의 정의를 내리는 데에는 여러 의견이 있어 왔다. 종교는 누구나 이해하고 있으므로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과, 종교의 정의는 경험적 연구를 축적한 후에 하여야 정확한 정의가 가능하다고 하기도 하며, 종교는 초자연적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 등이 있다.<sup>7)</sup> 즉 종교는 일반적 현상이라 정의를 할 필요가 없다거나, 종교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 연구를 충분히 한 후에나 정의가 가

6) 張秉琳, 鄭漢澤, 心理學(서울 : 博英社, 1980), p.305.

7) 권규식, 종교의 사회학적 이해(서울 : 이문출판사, 1997), p.144.

능하며, 종교는 초월적 현상이라 정의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현상의 연구는 경험적 검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종교에 관한 정의를 해야 한다. 종교의 정의는 종교현상을 연구하는데 일종의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을 제공해 주며, 종교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어떠한 연구를 하는 데에는 무엇에 관한 연구이며,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에 관한 제시를 하지 않으면 경험적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종교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정의를 해야만 한다.

종교는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다.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종교적 신념, 문화적 환경, 종교적 관점 등이 각기 다르게 때문에 정의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종교 현상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어떤 측면에서 종교를 파악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종교인은 자신이 믿는 종교만이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타종교는 비합리적이거나 무가치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종교인의 정의는 주관적이고 배타적이어서 종교의 일반성을 결여하고 있다. 한편 종교학자들의 정의라 하더라도 종교 현상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종교 현상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종교 학자들의 종교 정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종교에 관한 어떠한 정의도 종교의 모든 면을 포괄할 수 없어 가설적 정의(假說的 定義)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 종교 연구를 위한 종교의 정의는 연구를 위한 하나의 도구적 성격을 갖고 있어 가설적이다. 그러나 종교 연구를 위한 종교의 정의는 종교 현상을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 특정한 종교 현상을 연구하려는 종교의 정의라 하더라도 종교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종교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해서, 또는 과학적 종교 연구를 위한 정의를 하는 데에는, 학자들이 한 종교의 정의를 살펴보고,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적합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대순사상의 삼요체 중 信과 종교의 신념체계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종교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윤리적인 생활을 하

도록 하는 교리를 갖고 있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종교의 교리가 참다운 진리이며, 교리를 실행하는 것이 인격을 완성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종교는 믿음과 信念에 의해 형성된다. 타일러(Edward B. Tylor)는 종교란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sup>8)</sup>이라 하였고, 들캄(Emile Durkheim)은 종교의 본질은 聖과 俗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종교는 “구별되거나 금지되는 신성한 것과 관련된 의식의 통합적 체계이고, 이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신념과 의식이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 결합시킨다”<sup>9)</sup>고 한다.

잉거(Milton J. Yinger)는 “종교란 믿음과 의식으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로서, 인간은 믿음과 의식으로 궁극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sup>10)</sup>이라 하고, 월라스(Anthony Wallas)는 종교란 “초자연적 존재, 능력, 힘 등과 관련된 믿음과 의식의 행동 유형”<sup>11)</sup>이라 한다. 샌더슨(Stephen K. Sanderson)도 종교는 “자연 세계와 사회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자연적 존재, 능력, 그리고 힘의 존재로서, 증명될 수 없는 믿음에 근거하는 신념과 의식의 조직적 체계”<sup>12)</sup>라 한다.

따라서 종교는 특정한 신념을 갖고 실행하게 하는 가치체계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종교 생활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인간의 유한성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자에게 의존하려 한다. 인간은 영원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자를 인식하고, 그에 대해 외경의 감정을 갖게 된다.

인간이 절대자에 대한 외경은 본능적인 감정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종교적 존재, 또는 종교적 인간이라고도 한다. 인간은 다양한 본능적 욕구를 가

8) Edward B. Tylor, *Primitive Culture* (New York : Harper & Row, 1958), p.8.

9) E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New York : The Free Press, 1965), p.62.

10) Milton J. Yinge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New York : Macmillan, 1970), p.7.

11) Anthony Wallas, *Religion : An Anthropological View*(New York : Random House, 1966), p.5.

12) Stephen K. Sanderson, *Macrosociology* (New York : Harper & Row, 1988), p.385.



지고 있는데, 종교적 본능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인간은 종교성(religiosity)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본능적이라는 것이다. 종교는 분석심리학의 입장에서조차 인간 마음의 직접적 표현이라 한다.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원천이 내재하고 있다고 하여, 인간은 종교적 본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인간의 종교적 본능이 인류의 근원적이며 보편적인 집단적 무의식으로 종교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인간이 외경 감정을 갖는 것에 대해 R. Otto는 피조물 감정, 전율하는 신비감, 끌리는 감정 등이 복합되어 있다고 하기도 하며, 절대자에 대해서 갖는 聖(Numinose)의 감정이라고도 한다.<sup>13)</sup> 절대자가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감정이 외경이라는 것이다. 인간 본성인 종교적 신념의 형식은 聖(Numinose), 종교성(religiosity), 原型的 存在論(archaic ontology),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피조물 감정은 인간이 신과 같은 절대자에 비해서 미약하고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절대자에 의존하려는 심적 태도를 갖는 것이다. 피조물 감정은 절대자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신비감을 갖는 것으로, 절대자의 무한한 능력을 두려워하는 감정인데, 이는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포와는 다르다. 인간은 공포나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도피하고 싶지만, 피조물 감정은 자신도 모르게 절대자에 의존하고 싶은 감정이 생기는 것이다.

절대적 존재에 대한 외경으로 인한 피조물 감정이 종교적 믿음을 생기게 한다. 종교적 믿음은 종교 의식에서 형성된다. 종교 의식은 종교적 감정의 측면과 지적 측면이 있다.<sup>14)</sup> 종교는 감정적 측면과 지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종교에는 근본적으로 경이, 숭배, 갈망, 흥분 등의 감정적 요소가 내재해 있다. 종교의 감정적 측면은 절대자를 인정하고, 숭배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인간이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위기를 당했을 때에는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갖게 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죽음을 맞거나 극도의 고통으로 생존의 위기를 맞으면 절대자에 의존하려는 감정이 자연적으로 생기

13) 이은봉, 종교세계의 초대(서울 : 志學社, 1985), p.19.

14) 上揭書, p.65.

게 되고, 종교 의례나 행사 등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

한편 인간은 절대자에 祈願을 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종교 의식을 갖게 된다. 원시시대부터 농사가 잘 되게 해 달라거나 추수가 끝난 후의 제천행사(祭天行事)나 풍어제(豐漁祭), 기우제(祈雨祭), 그리고 추수감사절 등은 절대자에 대한 기원에서 비롯된 종교적 의례이다.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사랑, 자비, 도덕성, 정의감 등도 감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敎理를 충실히 행할 때에 절대자로부터 은총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감정적 믿음이다.

종교적 감정은 신비주의(Mysticism)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비주의는 인간이 神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는 데에서 형성된다. 대부분의 종교는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신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종교에서 신비적 체험은 내적 경험으로 직관적 확신으로 나타난다. 종교적 신비 체험은 논리적 사색이나 추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를 직접 접촉한 것이어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신비적 체험은 전인적이고 생활에서 실행되는 성격을 갖는다. 신비적 체험을 한 사람은 절대적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의 신념으로 내면화하여 실천하고자 한다.

종교적 믿음은 감정적 요소가 중요하지만, 지적 요소도 경시할 수 없다. 종교 의식이 단순한 감각이나 감정에만 의존하게 되면, 미신에 머무를 수 있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종교 의식은 감정과 동시에 지적 행위를 통해 논리적 사고와 진지한 반성을 해야만 참다운 자아를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은 감각적 경험을 지적으로 사색하고 논리화하여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인간이 종교적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맹신으로 주체성을 상실하여, 단순한 기복적(祈福的) 행위에만 빠질 수 있고, 편협한 비이성적인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다. 한편 종교 의식에서 지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지적 요소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신앙을 경직시키고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신앙은 신비주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직 논리적 설명과 지적 추구만을 하면 종교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종교의 감정적 요소와 지적 요소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종교

적 태도라 하겠다.

종교적 믿음이나 의식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 내용에 대한 통일적 인식이 다. 종교에 대한 통일적·종합적 인식은 하나의 관념을 구성하는데, 종교적 관념은 실천과 직접 관련이 있다. 종교적 믿음은 실천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 종교적 믿음은 절대자를 숭배하는 데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자의 가르침이라 할 교리를 실행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 절대자를 인정하고 종교적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교리를 실행하여야 종교적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인간이 종교적 믿음을 갖고 종교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인간이 당면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인간의 능력과 문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생활에서 겪는 복잡한 문제와 고통, 특히 죽음은 인간의 능력과 문화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여기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성을 깨닫고 종교적 삶을 살게 된다. 모든 인간은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를 하고,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고통에서 해방하고자 한다. 종교적 삶은 인간의 고통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이 종교적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인 자유를 얻으려는 것이다.

절대자를 숭배하고 그의 가르침인 교리를 따르는 삶이 자유로운 삶이고,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삶이라는 종교적 믿음이 종교 생활을 하게 한다. 종교 생활은 곧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믿음, 교리를 따르는 삶이 참다운 삶이라는 믿음에서 이루어진다. 어떠한 종교이든지 윤리적 선과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일상생활의 규범이 되는 계율이 있는데, 이를 실행하는 것이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참다운 삶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 2. 信念體系의 意義

신념(믿음)은 종교의 핵심적 구성요소의 하나이다. 종교의 구성요소는 신념(belief), 수행 또는 의례(rituals), 공동체(community)로 보고 있다.<sup>15)</sup> 신념은

15)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서울 : 사회비평사, 1997), p.58.

종교의 認知的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계와 자신에 대한 이해의 근거를 제시하며, 종교 행위의 기초로 작용한다. 신앙생활에서 신념은 신앙 대상의 성격과 기원, 그리고 신앙의 대상과 인간과의 관계 등을 설명해 준다. 신념은 종교적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되기도 한다. 종교적 믿음은 인간의 의식과 직접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악령이 실재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에게는 악령이 실재한다. 사람이 실재한다고 믿으면, 그것의 실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재하는 것이며, 그러한 믿음에 의해 행동하게 된다.

종교에서 신념이나 신앙(belief)은 확신(confidence)의 심리상태를 뜻한다.<sup>16)</sup> 확신은 느낌, 판단, 지식과 같은 인식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확고하게 믿는 것이다. 종교적 신념을 갖는 확신은 신비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신비로운 沒我的 經驗(ecstasy)은 자신의 느낌, 의식, 판단을 하는데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자기 확신을 하게 된다. 특정 종교에서 신비한 몰아적 경험에 의한 자기 확신이 체계적으로 의식되고 언어 형식으로 표현되어, 종교인들간에 공유하게 되면 종교적 신념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종교에서 신비적 체험은 성스러움을 갖는 것으로, 동일한 종류의 체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한다.<sup>17)</sup> 종교는 성스러운 것에 대한 신념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종교란 신성한 것, 구별되거나 금지된 것과 관련된 신념과 의식의 하나의 통합된 체계이고, 신념과 의식은 그것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종교라는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 결합시킨다.<sup>18)</sup> 종교적 신념체계는 성원들을 통합시키고 세계관, 우주관을 공동체의 이상이나 목표와 관련하여 하나로 응집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하나의 종교적 신념체계를 갖고 있는 공동체 안의 여러 제도는 성스러운 합법성을 갖게 된다.<sup>19)</sup>

인간이 자신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무한의 세계를 인정하고, 외경심을 갖

16) 尹以欽, 前掲書, p.12.

17) Edward B. Tylor, *op. cit.*, p.5.

18) 권규식, 전계서, p.196.

19) 黃善明, 宗敎學概論(서울 : 종로서적, 1996), p.213.

는 것이 종교적 믿음이다. 종교적 믿음의 내용과 범위는 종교에 따라,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다. 절대자와 성스러움은 종교에 따라 각기 다르며,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신념체계도 달라져 왔다. 종교적 신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 경험과 믿음을 표현한 교리이다. 교리는 원시시대에는 신화로 표현되었으며, 문명화되고 종교가 발달하면서 각각 고유한 교리로 체계화되었다. 종교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종교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계와 자신의 이행의 근거를 제시해 주며, 행동의 기초로 작용하는데, 이를 교리라 한다. 교리는 신앙의 근거가 되며, 종교적 활동과 윤리적 행동의 기초가 된다.

신앙은 종교적 신념체계에 의한 생활이다. 어떠한 종교이든지 고유한 신념체계가 있으며, 특정 종교를 믿는 신앙생활은 그 종교만의 독특한 신념체계를 내면화한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은 종교인에게 최상의 신념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종교적 신념은 일상생활과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해석하게 하고, 삶의 궁극적 지향을 제시해 준다.

한편 개인의 직접 경험하지 않은 종교적 신념, 예를 들면 인간, 우주 등에 대한 추상적 개념들에 대한 확신은 각각의 종교가 갖는 고유한 교리이다. 신앙의 직접적 체험과 고유한 교리 등이 종교인 사이에서 공유되고 언어로 표현되면, 문화 또는 종교적 체계를 갖추게 된다.

종교적 신념내용과 신념을 확신하는 심리상태는 종교적 신념구조를 이루고 있다. 신념내용은 문화전통에서 형성된 것이고, 심리상태는 문화외적인 인간 본성의 요인이다. 종교적 신념은 인간 본성과 문화요인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sup>20)</sup> 종교적 신념체계는 인간 본성에 의한 신념 형식과 역사적으로 주어지는 신념 내용으로 구성된다.

종교적 신념은 신, 세계, 인간의 구성과 관계 등으로 이루어진다. 종교는 신이 주재하는 우주적 질서와 그 속에서 인간과 신의 존재 방식에 의해 형성된다. 종교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가치와 관련되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운명 등에 관해 각기 독특한 입장을 갖고 있고, 인간과 우주와 만물

20) 尹以欽, 前掲書, p.13.

의 창생과 변화 등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는 인간의 유한성을 전제로 하므로 신의 존재, 신과 인간의 관계에 관해서도 밝혀 주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종교는 세계관(우주관), 신관, 인간관들이 신화, 교리, 교의 등으로 형성된다.

### (1) 世界觀(宇宙觀)

대부분의 종교는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현세는 유한하여 인간은 일정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종교는 현세에 대한 來世, 또는 사후세계가 존재하며, 인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한한 세계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모든 종교는 초월적인 존재와 인간, 삶과 죽음이라는 이원적 요소를 제시하여, 현실세계와 이상화된 미래세계를 비교하여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현실은 고통과 고난의 세계이며, 이상세계는 永生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세계로 상정한다. 현실세계는 악과 불의가 난무하고, 이상세계는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공존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자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고 내세에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종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상세계에 이른다고 하기도 하고, 도덕성의 실현과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이른다는 견해도 있다.

### (2) 神觀

신관은 종교의 체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신관 연구는 미개 종교에서 문명종교로, 원시종교에서 보편적 윤리종교나 고등종교로 발전하는데 관한 연구에 적절한 도구가 되어 왔다. E.B.Tylor에 따르면 종교의 원초형태로 애니미즘(animism) 이론을 제창하였다. 그의 종교론은 진화론적인데, 미개인이 경험하는 환각, 꿈, 죽음의 현상으로부터 살아 있는 것은 영혼이 있으며 육체와 분리된 정령(精靈)이 존재한다고 한다. 미개인은 영혼이 사람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영적 존재를 믿는 애니미즘 이론을 주장하였다. 여러 혼(魂)들이 존재하는데, 혼이 개성적인 성능이나 구조를 가지고 일정한 모습을 갖추게 되면 정령(spirit)의 관념이 형성되고;

보다 진화하면 신지(deity)나 신의 관념으로 발전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신 관념이 형성되면 원초적 형태의 영적존재(spiritual being)에 대한 신앙이 된다고 한다. 타일러는 애니미즘이 하나의 종교이며,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사물이나 제 현상을 설명하는 원리라 한다.

Tylor의 주장에 대해 R.R.Marett는 애니미즘을 비판하고, 유생관(有生觀)으로 설명한다. 그는 애니미즘 이전 단계인 프리애니미즘(preanimism)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Tylor의 이론을 보완하였다. 프리애니미즘은 미개인은 애니미즘보다 단순하게 비인격적인 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 가정한다.<sup>21)</sup> 애니미즘이 형성되기 전에도 미개인들은 자연현상에 대해 외경심을 갖고 원시적 형태의 종교 관념을 가졌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프리애니미즘을 주창하였다. 이것은 물리적인 힘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힘을 소유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데에서 종교의식이 형성되었다고 믿는 것이다. 이를 마나(mana)라 하는데, 마나와 유사한 주력(呪力) 관념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금기(totem)도 비인격적인 힘의 원리인 마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sup>22)</sup> 토템의 어원은 북미 오지바(Ojibwa) 인디언의 Ototeman(씨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토템은 특정의 자연종(natural species)과 사회집단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종을 씨족이나 부족 집단의 조상으로 숭배한다. W.H.R. Rivers는 토템의 특성을 사회적, 심리적, 의례적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사회적으로는 토템이 집단과 결합하고, 심리적으로는 집단 성원간에 친족관계가 있다는 신앙이 생기고, 의례적으로는 토템에 대한 외경으로 어떤 것을 먹고 동물을 죽인다든지 하는 것을 금지(taboo)하는 것이다. 토템은 종교의 원초 형태로 개인을 초월하여 집단을 구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토템은 집단 성원을 통합하는 힘이 있고, 집단을 표시하는 신성한 힘이 있다고 한다. 토템은 성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현실적 힘이 되고 있다.

S. Freud도 토테미즘에서 종교 기원을 찾고 있다. 그는 원시 가족에서 아버지는 여성을 독점하기 때문에, 자식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아버지를 증오

21) 黃善明, 前揭書, pp.109-110.

22) 上揭書, p.110.

하지만, 한편으로는 존경의 대상도 되어 증오와 존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양면 감정(ambivalenz)이 생긴다고 한다.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의 양심적 가책이 토템으로 표상하게 하여, 토템적 사물은 아버지의 상징적 대응물이라 한다.

원시 종교의 신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도 있다. W.Schmidt는 인류 초기의 문화사는 미개한 狩獵 採集民의 원문화(原文化)의 단계에서부터 토테미즘적 인 진화된 狩獵民 문화, 母權的 支配民 문화, 父權的 牧畜民 문화등 3개의 1차 문화가 고대 문명이라고 하였다.<sup>23)</sup> 세 문화 중 지상신(至上神) 개념이 두드러진 것은 목축민 문화인데, 지상신 신앙이 고유한 원문화의 종교 형태라 하였다. 원문화 민족은 지상신이 순수한 편이었고, 종속신은 큰 의미가 없었고, 주술이나 애니미즘도 미약했다고 한다. W.Schmidt는 원문화의 지상신은 전지전능하고 도덕성, 자비, 영원성을 가졌다고 한다. 그리고 Pettazzoni는 미개 민족에 있어서 지상신의 성격은 하늘 신격화 한 것이라 하였다.

원시시대의 일신관은 유일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신관념은 다양하게 전개된다. 유목민 문화는 天 觀念이 지배적이었고, 농경문화권에서는 母神信仰을 비롯한 다양한 多神觀, 그리고 인도에서 볼 수 있는 祭祀에 따라 主神이 바뀌는 교체신교(교환신교)는 유일신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유일신만을 강조하더라도 신은 다양하다는 범신론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범신론은 모든 종교에서 제기되고 있어, 기존 종교들은 이에 대한 단속을 하여 왔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신관은 본질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어 왔다. 다양하고 복잡한 신관은 자연적인 신과 인격적인 신으로 대별할 수 있다. 신들은 자연과 자연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일월성신(日月星辰), 天, 대지, 山, 川, 水, 海, 그리고 바람, 태풍, 비, 새벽, 밤과 같은 기후 현상 등도 神格化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신은 조상신, 영웅신, 문화신 등 인격적 특성도 갖고 있다. 한편 天父神이나 地母神과 같이 자연적 성격을 가지면서, 인류 및 모든 조상을 포함하는 신도 있다.

신의 형태는 동·식물과 인간과 같은 모습과 특성을 가진 것으로 표상된다. 일반적으로 식물이나 동물의 형태관에서 의인신관(擬人神觀)의 방향으로

23) 上揭書, p.112.



나타난다. 擬人神觀은 고도의 문화에서도 나타나는 신관으로 혼합형도 많다. 擬人神觀의 혼합형으로는 인두수신(人頭獸身), 수두인신(獸頭人身) 등도 있다.

多神敎에서는 신들 간에 질서가 유지된다고 하며,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성격과 기능을 갖는다. 신들의 조직화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성별이다. 天空神과 같이 無性이나 양성적인 신도 있지만, 대부분이 성별에 의한 특징이 있다. 동물 형태의 신과 擬人화된 신들은 대부분 성적으로 분화되는 경우가 많다. 신들이 연애를 하기도 하고, 配偶關係, 가족, 세대관계 등의 계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신들은 사회적·정치적 원리에 의해 조직화되기도 한다. 主神의 주재에 의해 상하의 위계가 정해지는 神統과 神會가 이루어진다. 또는 이원적인 대립에 의해 신들이 조직화되기도 한다. 신의 위계인 上神과 下神, 하늘과 땅의 神, 낮의 신과 밤의 신 등으로 나뉘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신들의 조직화는 三神과 같이 數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신은 고정화되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특성화된다. 신들은 융합·동화되기도 하고, 분화·분열하여 새로운 신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결국 신은 신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신관념은 일정한 이론으로 정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일반적으로 규범이나 관습의 통제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呪力에 의한 관념이 많고, 사회통제가 강화되는 사회에서는 신관념이 우세한 경향이 있다.

### (3) 人間觀

종교에서 인간관은 최초의 인간 창조, 생존과 인간 생활,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의와 윤리관 등에 의해 형성된다. 종교에서 인간은 창조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경우, 卵生說과 같이 알에서 태어난 경우, 無에서 생겨난 경우, 흙으로 빚어졌다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인간의 생성과 더불어 종교에서는 현세에서의 인간의 생활과 존재방식이 관심의 대상이다. 생물적 존재인 인간은 죽음이라는 최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하여 현세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종교의 인생관

에 있어서 핵심이다. 인간 행동은 생명유지가 가장 큰 본능이며, 이러한 본능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난다. 죽음에 의해 소멸해 버리고 말 것이라는 고통이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고뇌이며, 이를 극복하려는 것이 삶의 최대 과제이다.

미개인은 죽음을 惡靈에 의한 것이라 믿는데, 삶과 죽음을 의례적으로 반복하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게 하기 위한 成年式에서 자연적인 죽음과 같은 상징적 의식을 한다. 할례, 삼립 속에 숨거나 약을 먹는 등의 성년식을 통해 미성년자는 죽고 성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시련을 겪는 성년식을 통해 죽음을 새로운 삶의 의식으로 이해하며, 죽음의 공포를 생의 활력으로 전환시킨다. 생과 재생의 의례는 미개 종교만이 아니라, 원시종교와 고대 종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의례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인간의 영적 능력을 신앙으로 전환시킨다.

고대 그리스 종교에서는 인간의 죽음은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호메로스에 의하면 인간은 영웅이건 보통의 인간이건, 신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죽음이라 한다. 인간은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은 가치 있고 빛나는 것이지만, 죽어야 하기 때문에 슬픈 것이라 한다. 여기서 유한한 생을 영웅적 행위로 장식하는 비극의 찬미를 하였고, 생을 육체와 혼으로 나누는 플라톤 주의나 올페(Orpheus)教와 같은 이원론적 종교가 생겼다.

유대교에서는 來世라든가 피안에서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고 신이 입김을 불어 넣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 먹는 금기를 어기는 죄를 범하여 죽어야 할 운명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신이 인간에게 불어 넣어 준 靈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 이것이 구약성서인데, 후에 피안의 세계가 제시된다. 인간은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땅 속으로 간다고 한다.

기독교의 신약성서에서 죽음은 인간의 원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하고, 생과 함께 죽음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죽음이 최후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최후의 심판이 행해지며, 죽은 자는 모두가 부활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얻으며, 믿지 않는 자는 제2의 죽음

을 맞게 될 것이라 한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구체화하여 믿지 않는 자가 죽어서 가는 지옥, 임종 무렵에 회개한 자가 정죄(淨罪)하기 위해 머물러야 하는 연옥과 같은 교리를 정립하였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파는 이러한 관념이 성서에 배치된다고 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인도의 제 종교의 인간관에서 가장 큰 특징은 윤회설(輪回說)이다. 인간의 생은 현세에 한한 것이 아니라, 각기 행위의 결과에 따라 다른 생으로 전변한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해탈에 의하여 영혼도 육체도 無로 돌아가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생이란 무거운 짐에 불과하며, 죽음도 他生의 무거운 짐이다. 진정한 죽음, 열반(nirvana)을 맞기 위해서는 세계에 관한 진정한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한다. 원시불교에서는 석가의 깨달음이라 하였고, 사후에 대해서 무관심한 편이다. 후대에 대승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다시 주창하였고, 지옥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표상하였다.

### 3. 信念體系의 類型

종교의 신념유형(types of belief-system)은 종교적 신념의 수용욕구나 수용자의 정신적 동기의 유형을 말하는데, 종교적 신념유형은 (1) 祈福型, (2) 求道型, (3) 開關型 등으로 구분한다.<sup>24)</sup> 기복형(祈福型)은 주요 관심이 질병이나 자연적 재앙과 같은 구체적인 사건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행위와 안정된 행복한 생활을 하고자 한다. 기복형의 사유체계는 인간의 이상적 삶을 실현해 보려고 한다. 현재의 삶이 이상적 조건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으로, 來世의 일을 기원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려는데 관심을 둔다. 현세적 조건의 결여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려는 것이 기복이며 주술행위(呪術行爲)이다. 이러한 기복행위는 생존동기에서 생기는 자연적 현상이다. 주술적 기복행위는 불안정한 현실을 극복하려는데 관심이 있지, 행위자의 윤리적, 내면적 도덕성에는 관심이 적다. 그리하여 기복행위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며 합목적성을 갖고 있다. 기복행위는 목적을 실현하는데 관심이 있지, 누가 어떻게 하느냐 에는 관심이 적다.

구도형(求道型)은 인간 존재의 실존적 제약성에 대한 각성과 현실의 제약

24) 尹以欽, 前揭書, pp.15.

조건을 초월하여 이상적 자아 완성을 추구하려는 존재론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구도형은 현실세계와 이상세계에는 조건과 사상이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현실에서 자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려 한다. 현세에서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해석하고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구현하려고 한다. 완전히 변화된 삶은 우주와 사회, 인간이 일정한 원칙에 의해 완전한 질서가 유지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구도형은 진실한 자아를 추구하고 진리를 체득하고자 하는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 상태는 全人的이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 수련과 극기, 고행 등이 요구된다. 엄격한 수양과 고행은 전인적 이상을 실현하고, 진리를 體認하는 과정이다. 구도형에서는 이상적 목표도 중요하지만, 전인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도 중대하다. 求道者에게는 진실한 자아를 발견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 세속적인 일과 사회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수련을 통한 이상상태에 접근하려고 집중한다.

개혁형(開關型)은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 시대를 준비하는데 관심을 집중한다. 개혁은 현실세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개혁이 되면 현재 인류가 겪는 각종 사회문제와 개인의 생존 문제 등 복잡한 문제들이 일시에 완전히 해결된다고 한다. 개혁사상에는 사회의 본질적 변혁을 추구하는 개혁의지와 이상사회에 대한 집단적 소망이 담겨 있다. 개혁사상에는 새로운 이상세계의 실현에 관심을 집중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작업에의 참여를 강조한다. 개혁에 의한 이상세계는 인류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인간이 경험한 것 중 가장 이상적이었던 세계를 재현해 보고자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는 역사발전을 단선적(單線的)으로 인식하게 되고, 후자는 역사는 반복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종교적 신념의 3대 유형의 사상적 동기와 윤리적 태도를 보면, 기복형은 현실적이며 현세적 조건을 충족시키려 하므로 현재의 조건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경향이 있다. 구도형은 사회의 개혁보다는 구도자의 고행과 수양을 통하여 인간의 완성을 추구하므로 사회질서의 유지를 추구한다.

개혁형은 현실 조건 자체를 완전히 변혁시키려는 급진적 태도를 갖고 있다.

한 종교에는 하나의 신념유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유형이 공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떤 하나의 신념유형을 강조하여 그것이 지배적 성격을 띠게 된다. 하나의 종교사상은 두 개의 유형, 또는 세 유형이 동시에 강조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특정 종교사상은 세 신념유형의 상호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종교적 신념유형인 祈福, 求道, 開闢은 인간의 종교적 동기들이다. 인간이 생존하면서 소망하는 것들은 이 세 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종교는 祈福 動機를 갖고 있다. 기복 동기가 완전히 배제된 신념체계는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철학이나 정치사상이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종교이든지 구도와 개혁사상이 내재해 있다. 그리하여 바람직한 종교사상은 祈福, 求道, 開闢의 신념유형이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祈福, 求道, 開闢은 인간의 근원적 열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종교에서 하나가 결여되면 온전한 종교사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IV. 大巡思想의 信과 信念體系

### 1. 大巡思想의 信

대순사상에서 信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행해야할 중요한 교리의 하나이다. 수도생활을 하는데 실행해야할 기본인 삼요체(三要諦)를 誠·敬·信으로 강조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信을 중요시하는 것은 모든 종교는 믿음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신앙은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과 신념이 없이는 종교가 성립할 수 없다. 종교적 믿음과 신념은 창시자에 대한 절대적 숭배를 바탕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信은 첫째, 창시자에 대한 존경과 숭배, 그리고 창시자의 가르침을 체계화한 교리에 대한 믿음과 실행을 뜻한다. 대순사상은 창시자(創始者)인 강증산(姜甌山)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宗統을 계승한 조정산(趙鼎山)과 박한경(朴漢慶)을 숭배하고, 대순사상이 인류 구원의 대도(大道)이고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다.

강증산은 본래 구천에 있었는데 모든 神聖, 佛, 보살들이 모여 인류와 신명계의 겁액(劫厄)을 하소연하여 우리나라에 하천하였다 한다. 강증산은 삼계(天地人)의 대권을 주재하는 절대신으로 구천에 있었는데, 조화로써 천지를 개혁하고 불노장생(不老長生)의 선경을 열어 진멸 지경에 빠진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강세(降世)하였다고 한다. 강증산은 천상의 으뜸가는 절대적 권능의 소유자로 구천상제라 숭배하고 있는데, 그는 신명계와 인간계의 주재자인 조화주신(造化主神)이며, 개혁장(開闢長)으로 숭배되고 있다.

구천상제로부터 종통을 계승한 조정산(趙鼎山)은 만주에서 구세제민(救世濟民)의 큰 뜻을 품고 입산 공부를 하여 9년만에 구천상제의 삼계 대순의 진리를 감오하였다고 한다. 조정산은 수도를 계속하면서 구태인 도창현(舊泰仁 道昌峴)에 도장을 건설하고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고, 宗旨, 信條와 目的 등을 제정하여 하나의 종단으로서의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로써 대순사상은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포교를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수도방법과 의식행사 및 준칙 등을 제도화하였다.

道主는 1958년 박한경을 총도전으로 임명하고, 유명(遺命)으로 太極道の 운영 전반을 맡겼다. 1969년 4월 도전은 기구를 개편하고 종단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에 중앙본부 도장을 창건하고, 구호자선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둘째, 대순사상의 믿음은 자각을 통해 확신을 갖는 것이다. “자각이 없으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sup>25)</sup>고 하여, 믿음은 확신에 의해 생긴다고 한다. 스스로 깨달아 확고하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 한다. 즉 믿음은 한 마음을 정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한다. 믿음은 의심을 하지 않는 굳은 신념으로서,<sup>26)</sup> 확고한 믿음을 가졌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변함이 없이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믿음은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 한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에서 서로가 신뢰하게 되므로,<sup>27)</sup>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행하여야 한다고 한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요(自欺自棄), 마음을 속이

25) 대순지침, p.53.

26) 대순지침, p.54.

27) 대순지침, p.43.

는 것은 신을 속임이다(心欺神棄)고 하였으니 신을 속이는 것은 곧 하늘을 속임이 되는 것이니 어느 곳에 용납이 되겠는가 깊이 생각하라.”<sup>28)</sup>하고 있다.

넷째, 信은 정성과 정성을 기울여 의도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한 마음을 갖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한다. 한 마음만 가지면 누구나 뜻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sup>29)</sup> 인간이 한 마음을 갖고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정성을 기울여 노력하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마음을 간직하기란 죽기보다 어렵다<sup>30)</sup>고 하여, 한 마음을 갖고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였다.

다섯째, 믿음은 실행을 하는 데에서 생기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sup>31)</sup> 믿음은 인간이 결심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믿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스스로 신념을 갖는 동시에, 실행을 하여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여섯째, 유학에서 信은 언어라 하였는데, 대순사상에서도 말은 인격 수양으로 선하게 하여야 한다고 한다.<sup>32)</sup> 말은 마음의 소리이므로, 말을 좋게 하여 덕이 되게 하여야 한다. 말을 나쁘게 하면 그 여양(餘殃)이 나에게 미쳐 불행해진다고 한다. 훈회(訓誨)에 “언덕(言德)을 잘 가지라.”라 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말을 하며,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곱째, 대순사상에서도 信은 誠과 같은 덕목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誠은 사람의 정·기·신(精·氣·神)의 합일의 진성(眞誠)<sup>33)</sup>으로,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仁善을 행하여 스스로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이며, 참된 성품을 갖고 眞實無妄해 지는 것이며, 바른 마음을 갖고 忠言을 하며, 忠恕와 옳은 일을 실행하는 것 등이라 한다.<sup>34)</sup>

28) 대순지침, p. 42.

29) 전경, 교법 제2장 5절, p.234.

30) 전경, 교법 제2장 6절, p.235.

31) 대순지침, P.79.

32) 대순지침, p.46.

33) 대순지침, p. 51.

34) 拙稿, “誠思想과 修道”, 大巡思想論叢, 제9집(大巡思想學術院, 2000), 參照.

이상과 같은 信의 의미는 대순사상이 지향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덕목이다. 대순사상이 인류 구원의 대도(大道)이고,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 종교란 본래 창시자를 숭배하고 그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 참다운 인간의 삶이라는 신념을 기초로 형성되는 것과 같이, 대순사상의 信은 창시자를 숭배하는 굳은 믿음을 갖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 2. 大巡思想의 信念體系

대순사상의 신념체계는 대순진리회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종교 활동의 근거가 된다. 대순사상은 민족종교로서 한국인의 정서와 심성을 가장 적절하게 집약하였으며, 종교사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sup>35)</sup> 종교의 신념체계는 세계관(우주관), 신관, 인간관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순사상의 신념체계도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世界觀(宇宙觀)

대순사상에서는 우주는 天地人 삼계(三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天界는 하늘세계를 뜻하는데, 하늘은 九天이라고도 한다. 九天이란 하늘은 9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고 높은 곳이라는 뜻이다. 강증산을 구천상제라 하는데, 이는 최고 높은 하늘에 계신 최고신이라는 뜻이다. 地界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존재하는 땅을 말한다. 지계는 지상과 지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지계는 증산이 이상세계를 실현하려는 선경의 장소이다. 人界는 인간사회를 의미하는데, 인간은 지계에 근거를 두고 생활하지만, 우주의 중심적 존재이기 때문에 天地와 함께 三才로 중시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삼계와 동시에 신명계도 중요한 부분이다. 신명계는 신들의 세계이다. 신명계는 인간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靈과 仙에 의해 구성된 세계이다. 생존했던 인간들의 사후세계가 신명계인데, 인간과 신명과는 상호작용을 한다고 한다.

35) 김홍철, 증산교사상연구(이리 : 원광대학교 출판국, 2000), p.3.



대순사상의 세계관은 세계는 이미 존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연법칙은 구천상제의 창조와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종교의 세계관은 세계의 기원, 생성 등에 관한 것이지만, 대순사상은 현재 인간이 생존하고 있는 세상과 미래세계에 관심을 두었다. 세상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데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세계를 선천세계와 후천세계로 구분한다. 선천세계는 인류가 창생되어 온 이래 현재까지를 말하고, 후천세계는 새로이 도래할 미래세계를 말한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선천세계는 악과 불의가 난무하는 현실세계이고, 후천세계는 선과 정의가 구현되고 인류가 영생할 수 있는 이상세계로 설명한다. 선천세계는 고통스럽고 각종 재화가 빈번하게 나타나 인류와 만물이 진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선천세계가 재난이 계속되고 인간이 극한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1) 상극의 이치가 지배하여 인간계와 신명계가 모두 원한이 쌓여 있기 때문이고, (2)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고 투쟁을 하는데 원인이 있고, (3) 서양 문명이 물질에 치우쳐서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여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4) 인류가 모든 죄악을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려 삼계가 혼란하고 도의 근원이 끊어진 데<sup>36)</sup> 원인이 있다고 한다.

선천세계와 후천세계는 생명창조를 위한 분열과 통합운동의 원리가 다르다. 선천세계에는 대립과 분열, 화합을 통해 발전하는 데 비해서 후천세계에는 선천세계의 문화의 진수를 통합하여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킨다. 그리고 “선천시대에서는 죄로써 먹고 살았고, 후천시대에는 선으로 먹고 산다.”<sup>37)</sup>고 하여, 후천세계는 선이 지배한다고 한다. 후천세계는 상생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로서 원한이 해소되고 평화로운 선경이 실현되는 세계이다.

대순사상에서는 후천세계는 선경, 또는 지상선경이라 한다. 후천세계는 (1) 사람들이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2) 빈부의 차별이 없어지며 의

36) 전경, 교운 제1장, p.155.

37) 전경, 교법 제2장 55절, p.244.

식주가 완전히 해결되고, (3)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한 집안이 되어 시기 질투와 전쟁이 없어져 평화가 실현되며, (4)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아도 만물이 조화되어 인간 생활이 법리에 맞게 되고, (5) 인간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어지고, (6) 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지는 완전한 이상세계라 한다.<sup>38)</sup>

## (2) 神觀

대순사상의 神觀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신관과 무속신앙의 신관 등이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신관을 형성하게 된 것은 대순사상이 동양의 유불도 사상(儒佛道 思想)은 물론, 서양과 동학과 무속신앙까지도 통합하여 교리체계를 구성한데 원인이 있다. 대순사상의 신관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sup>39)</sup>

첫째, 창시자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일신론적(一神論的)이다. 대순사상을 창시한 강증산은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을 구원하려고 강세한 개벽장(開闢長)이며 미륵불(彌勒佛)로 최고신이다.

둘째, 신과 인간은 동일한 성격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이 죽으면 신이 된다는 신인즉일설(神人卽一說)의 입장을 갖고 있다. 인간은 신과 같은 고등정신인 영혼과, 동물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이고, 신은 육체는 없고 정신만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 신이란 인간영체(人間靈體)로 실존했던 사람의 사후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이란 인간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영체(靈體)가 죽은 다음 신계(神界)에 들어가 신이 되는 존재로 보고 있다.<sup>40)</sup> 인간의 영체가 사후에 신명계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므로, 구천에는 엄청난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영체가 빠져나가 신명이나 귀신이 되어 초월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사람이 죽어서 신명이 되어 하나의 개체로서 살아 있는 사람과 유사한 역할과 행동을 한다고 믿는다. 한편 神을 신인(神人)<sup>41)</sup>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神이 인간과

38) 전경, 예시 80-81절, pp.336-337.

39) 拙稿, 神人調化의 思想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제3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參照.

40) 사람에게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사대를 넘긴 후로 영도 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니라. 전경, 교법 제1장 50절, p.230.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셋째, 신은 인간 행동을 심판하는 존재이며, 인간의 능력과 생활태도를 판단하여 적절한 보상을 한다. “지금은 신명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닦칠 때에 신명들이 불갈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sup>42)</sup>하여, 인간의 죄악을 심판한다고 한다. 그리고 신은 사람의 생활태도와 능력에 적합한 임무를 부여하고 도와준다고 한다. 신명은 인간이 노력을 하여 능력을 개발하면 보호하고 도움을 주지만,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신명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간다고 한다.<sup>43)</sup> 그리고 부정한 짓을 하거나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神이 알고 벌을 내리므로, 덕을 닦고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고 한다.<sup>44)</sup> 그리하여 신명은 인간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여, 바른 마음을 갖고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행동을 하면 벌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우주 만물은 신의 조화에 의해서 존재하며,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은 인간에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천지에 신명이 가득 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리라.”<sup>45)</sup>라 하여,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신의 작용이며, 신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한다.

다섯째, 각각의 신은 서로 다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은 무수히 많으나 영적진화(靈的進化)의 차이에 따라서, 각기 다른 능력을 갖고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상의 모든 인간들의 인격과 능력이 각기 다른 것과 같이, 신들도 서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여섯째, 인간세계와 신명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사람들 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sup>46)</sup> 하여, 신

41) 전경, 교운 제1장 17절, p.160.

42) 전경, 교법 제3장 5절, p.246.

43) 전경, 교법 제2장 17절, p.237.

44) 전경, 교법 제1장 29절, p.226.

45) 전경, 교법 제3장 2절, p.245.

명계와 인간세계는 상호 감응관계(感應關係)에 있다는 것이다. 신명계와 인간세계는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체계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은 본원적 동일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신은 사람이 먹는 대로 흡향하니라.”<sup>47)</sup> 하여, 신은 인간과 공존하는 존재라 한다.

일곱째, 대순사상에서 신은 그 속성에 따라서 신명, 혼, 백, 선, 신장(神將), 귀신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신을 총칭하여 신명계라 하고 있다. 신명은 개별적인 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속성을 가진 신집단(神集團), 또는 신의 세계 전체를 뜻한다.

대순사상에서 신관은 강증산 상제를 최고신으로 숭배하는 일원적(一元的) 이면서도, 신은 인간과 같은 인격을 갖고 있다는 의인간적 다신관(擬人間的 多神觀), 신과 인간은 동일한 근원을 갖고 있다는 신인동형적 신관(神人同形的 神觀)이라 할 수 있다.<sup>48)</sup> 그리고 신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심판하고, 신의 조화에 의해 인간과 만물이 존재하며, 신들은 각기 다른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간계와 신명계는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체계라 한다.

### (3) 人間觀

대순사상에서의 인간의 출생, 인간의 존재 양식과 상황, 윤리관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간은 선령신(조상신)들의 지극한 정성에 태어난다고 한다.<sup>49)</sup> 인간은 조상신들이 천상에서 육십년 동안의 공을 쌓아야 자손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때로는 그렇게 정성을 들여도 자손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간이 태어난 것 자체가 조상신의 지극한 정성에 의한 것으로 커다란 축복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한다. 한편 “상제께서 자식을 태어주시고도 그 부모에게 알리지 않으시오니 무슨 까닭이 오니까.”<sup>50)</sup>라 하여, 강증산이 직접 사람을 출생하게도 한다고 한다.

46) 전경, 교법 제1장 54절, p.231.

47) 전경, 교법 제1장 49절, p.230.

48) 盧吉明, “神과 人間의 원한을 抹消한다”, 趙明基 외 33인, 韓國思想의 深層研究 (서울 : 宇石, 1990) p. 430

49) 전경, 교법 제2장 36절, p.241.

50) 전경, 교법 제3장 11절, p.247.

둘째, 인간의 출생은 神이 인간으로 화신(化身)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강증산은 구천에 있던 최고신이었는데, 진멸의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강세하였다고 한다. 원래 神으로 천상에 있었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지상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신이 인간으로 화신한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태어난 것은 죽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生由於死 死由於生)이라고도 한다.

셋째, 인간을 음양 복합체로 정신과 육체로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다. 사람은 혼(魂)과 백(魄)이 있는데, 혼은 정신이고 백은 육체라 할 수 있다. 혼은 陽이라 할 수 있고, 백은 陰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의 정신은 육체와는 다른 靈으로 유체(幽體)라고도 한다. 유체란 육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다른 것으로, 하나의 氣와 같은 것이다. 유체는 육체와 같은 형상이지만 사람의 혼(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sup>51)</sup> 따라서 사람은 생존시에도 신과 같은 영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다.

넷째,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로서 욕망을 이루지 못하면, 원한을 갖게 된다고 한다.<sup>52)</sup> 인간이 원한을 갖게 된 원인은 (1) 인간 사물을 상극이 지배하고, (2) 명부의 착란으로 세상이 착란되고,<sup>53)</sup> (3) 상극원리에 의한 겁재(劫災), (4)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경우, (5) 원한을 가진 신명(冤神)이 인간에게 작용하여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에서 생긴다고 한다. 인간이 원한을 갖게 되면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에서 복수, 증오, 저주, 좌절감 등을 갖는다. 여기서 인간사회의 원한은 새로운 원한을 갖게 하여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원한을 갖게 되는 것을 척이라고도 한다.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라.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sup>54)</sup> 한다.

51) 安耕田, 甌山道の 眞理(서울 : 大原出版社, 4329), p.109.

52) 전경, 교법 제3장 24절, p.254.

53) 전경, 공사 제1장 5절, p.99.

54) 전경, 교법 제2장 44절, p.242.

다섯째, 인간은 수련하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존재라 한다. “너희들도 수련을 쌓으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sup>55)</sup> 하여 수도를 하면 무한한 능력을 갖게 되고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같이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sup>56)</sup> 한다. 수도를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굳은 신념이 형성되어 신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인간이 수도를 하여 능력을 개발하면 우주의 중심적 존재가 될 것이라 한다. “선천에서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sup>57)</sup> 하여, 후천세계에서는 인간이 하늘의 뜻을 실행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 한다. 우주 문명의 최고 이상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여섯째, 인간은 각기 운수가 정해져 있는데, 성심을 갖고 스스로 노력하여야 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운수는 열려도 자신이 감당치 못하면 본 곳으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기도 하리라.”<sup>58)</sup> 하고,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sup>59)</sup> 하여, 마음을 바르게 할 것을 강조한다. 인간이 복을 받으려면 성숙한 인격을 완성하고, 윤리적 생활에 충실해야만 한다.

일곱째,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 “창생이 큰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고 적은 죄를 지은 자는 신벌 혹은 인벌을 받느니라.”<sup>60)</sup> 하여,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신이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마음을 갖고, 경건한 마음과 신중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신명의 수찰이 있음을 명심하고 속임과 거짓이 없는 생활”<sup>61)</sup>을 할 것을 강조한다.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사람과

55) 전경, 권지 제2장 35절, p.288.

56) 전경, 교법 제2장 22절, p.237.

57) 전경, 교법 제3장 35절, p.257.

58) 전경, 교법 제2장 38절, p.241.

59) 전경, 교법 제1장 21절, p.225.

60) 전경, 교법 제1장 32절, p.226.

61) 대순지침, p. 39.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 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 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가리니 일에 뜻하는 자가 한시라도 어찌 감히 생각을 소홀히 하리오.”<sup>62)</sup>라 하여, 가정의 화목도 강조한다.

여덟째, 인간은 신과 공존하면서 교류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생존시에도 신명의 호위를 받기도 하고, 신명이 마음속을 드나들기도 한다. “사람마다 그 닻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하여, 개인의 수양과 능력에 적합한 일을 하도록 신명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 그러므로 나는 약하고 병 들고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리니 이는 비록 초목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게 되는 연고이니라.”<sup>63)</sup>하여, 신명이 사람 속에 들어가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기도 한다.

인간은 陽이고 신은 陰인데, 음양이 상합하여야 변화의 도가 이루어진다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sup>64)</sup>, 라 하여 신과 인간은 음양으로 보았다. 음양인 인간과 신이 협력하여야 우주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를 신도(神道)라 할 수 있는데, 신과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덕을 상대로부터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고, 완전함을 추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sup>65)</sup>

아홉째, 인간이 잘되고 못되고는 정성에 달려 있다고 한다. “모든 일이 욕속부달(欲速不達)이라. 사람 기르기가 누에 기르기와 같으니 잘 되고 못되는 것은 다 인공에 있느니라.”<sup>66)</sup> 이라 하여,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데에 욕심은 많으나 욕심대로 자식을 키울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을 기르는데,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열째, 대순사상에서는 인존시대라 하여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보고

62) 전경, 교법 제1장 42절, p.229.

63) 전경, 교법 제3장 1절, p.245.

64) 전경, 제생, 43절, p.309.

65) 拙稿,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的 價値”, 大巡思想論叢, 제2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66) 전경, 교법 제2장 34절, p.240.

있다. “천지가 일월이 아니면 빈 껍데기요. 일월은 지인(知人)이 아니면 허영(虛影)이요.”<sup>67)</sup>라 하여, 우주도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인존시대라.”<sup>68)</sup>라 하여, 후천 시대에는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다고 한다.

### 3. 大巡思想의 信念體系類型

대순사상의 신념체계의 유형은 祈福, 求道, 開闢이 공존하고 있다. 첫째, 대순사상은 대부분의 종교와 같이 祈福的이다. 대순사상에서는 “나의 일은 남이 죽을 때 잘 살자는 일이요. 남이 잘 살 때에 영화와 복록을 누리자는 일이니라.”<sup>69)</sup>하여, 행복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 인간이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참된 마음을 갖고 인격을 완성하고 윤리적인 생활을 하여야 가능하다고 한다.

인간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덕을 쌓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라.”<sup>70)</sup> 한다.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여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sup>71)</sup> 그리고 진심견수복선래(眞心堅守福先來)<sup>72)</sup>라 하여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순사상의 행동 윤리라 할 수 있는 훈회(訓誨)도 마음을 속이지 말고, 언덕(言德)을 잘 가지라고 한다.

대순사상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으니라.”<sup>73)</sup> 하여, 원수와 같은 상대라 하더라도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대하라고 한

67) 전경, 교운, 제1장 30절, p.167.

68) 전경, 교법 제2장 56절, p.244.

69) 전경, 교법 제1장 6절, p.221.

70) 전경, 교법 제1장 11절, p.222.

71) 전경, 교법 제1장 21절, p.225.

72) 전경, 교법 제2장 3절, p.234.

73) 전경, 교법 제1장 34절, p.227.



다.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sup>74)</sup> 한다. 원수를 용서하고 은인과 같이 대하는 것이 덕을 쌓고 복을 받는 길이라 한다.

인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운수가 열려도 성심이 없으면 받지 못하고,<sup>75)</sup> 감당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고 한다.<sup>76)</sup> 모든 인간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성심을 갖고 충실한 생활을 하여야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순사상은 求道的(修道的) 信念도 내포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앙을 道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修道라 하여, 구도적이다. 신앙생활을 수도라 한 것은 구도와 동시에 보다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수도는 엄격한 자기 수양을 하는 구도를 하는 동시에, 대순사상이 인간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완전한 신념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수도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선행해야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수도는 인간이 폭 넓은 지식을 쌓는 것이다. 대순사상은 “가장 두려운 것은 박람박식(博覽博識)이니라.”<sup>77)</sup>하여, 우주와 인간에 관한 다양한 깊은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수도는 한 마음을 갖는데 의의가 있다. “한 마음(一心)을 가지면 복을 받는다.”<sup>78)</sup>고 하는데, “진실로 마음을 간직하기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sup>79)</sup>고 한다.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번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유지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고 한다. 진실한 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수도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죄가 없어도 있는 듯이 잠시라도 방심말고 조심하라.”<sup>80)</sup>고 한다.

수도는 신명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람마다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74) 전경, 교법 제1장 56절, p.231.

75) 전경, 교법 제2장 37절, p.241.

76) 전경, 교법 제2장 38절, p.241.

77) 전경, 교법 제2장 24절, p.238.

78) 전경, 교법 제2장 4-5절, p.234.

79) 전경, 교법 제2장 6절, p.235.

80) 전경, 교법 제1장 36절, p.227.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가느니라.”<sup>81)</sup>한다.

대순사상의 수도는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옳은 말을 듣고 실행치 않는 것은 바위에 불주기와 같으니라.”<sup>82)</sup>하여, 수도는 실행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의미도 없다고 한다.

셋째, 대순사상은 開闢적이다. 開闢이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뜻이다. 대순사상에서도 선천세계는 인류를 포함한 만물이 진멸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상세계인 후천세계를 열기 위해서는 개벽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 대순사상의 개벽은 천지를 새롭게 만들고, 인간이 참다운 마음을 열어 윤리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완성하고,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겠다는 창조적 의미가 있다.

개벽적인 종교는 선천의 종말을 예고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개벽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이며, 개벽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와 태도, 개벽이 실현되었을 때의 상태, 이상세계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등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sup>83)</sup>

대순사상의 선천세계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극으로 극도로 혼란하고 각종 재화가 빈발하여 인류와 만물이 진멸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삼계대권을 가진 구천상제가 강세하여 인류를 구원하려고 천지공사를 행하고 개벽을 추진하였다. 구천상제가 주도하여 개벽을 추진하므로 개벽장(開闢長)이라 한다.<sup>84)</sup> 개벽은 구천상제에 의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 한다. 개벽은 삼계의 절대 권한을 가진 구천상제가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도수를 조정하여 선경을 건설하는 것이다.<sup>85)</sup> 이를 삼계공사라 하는데, 이는 天地人 삼계를 개벽<sup>86)</sup>하는 것으로 신명과 인간사회의 조화를 통해 실현된다.<sup>87)</sup> 개벽은 구천상제가 최초로 행하는 것으로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쳐서 선천의 상극원리를 상생원리로 고치어 창생을 구제하는 것이

81) 전경, 교법 제2장 17절, p.237.

82) 전경, 교법 제1장 22절, p.225.

83) 尹以欽, 韓國宗教研究 : 卷2(서울 : 集文堂, 1991), p.108.

84) 전경, 공사 제1장 1절, p. 97.

85) 전경, 공사 제3장 5절, p. 131.

86) 전경, 예시 5절, p. 312.

87) 전경, 예시 17절, p. 314.

다.<sup>88)</sup> 상극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여 원한이 쌓여서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않아 참혹한 재화가 생긴 것을, 하늘도 고치고 땅도 고치고, 신명이 사람의 마음에 드나들게 하여 삼계를 개조하는 공사이다.<sup>89)</sup>

그리하여 개혁은 (1)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2)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해소하며, (3) 상생의 道로 선경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sup>90)</sup> 천지도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천지공사인데, 천지공사를 통해 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상극으로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확립하는 것이 개혁이다. 천지도수의 정리는 음양도수를 조정하는 작업이다. 상극이 지배할 때에는 억음존양(抑陰尊陽)이었는데, 천지도수를 조정하여 정음정양(正陰正陽)의 상태로<sup>91)</sup> 만드는 작업이다.

개혁은 인간사회만의 변화가 아니라 신명세계도 개혁하여 신명과 인간사회가 조화를 이루어야 실현될 수 있다. 인간사회는 신명계와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안정되고, 신명의 도움이 있어야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은 명부의 상극의 도수를 고쳐서 신명과 창생이 상생하도록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sup>92)</sup> 명부(冥府)란 인간이 죽어서 처음 가는 곳이라 한다. 명부는 지상과 천상신계(天上神界)의 중간으로, 죽은 사람의 혼이 일시 머무르는 곳이다. 지상에서 사람으로서 살았을 때의 선악의 정도에 따라 판단을 받는 곳이다. 삼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명부가 상극으로 안정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명부를 상생하게 하여야 신명계와 인간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개혁을 하는 천지공사는 神道를 잘 다스리는 일이다. 대순사상에서는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한다.”<sup>93)</sup>, “아표신이 천상으로 올라가 지상의 만물이 굶주리지 않게 된다.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다스리어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이질적인 문화를 통합한다.”<sup>94)</sup> 그리고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

88) 전경, 예시 5-6절, p.312.

89) 전경, 예시 7절, p.312.

90) 전경, 공사 제1장 3절, p. 98.

91) 전경, 공사 제2장, 16절, p. 120.

92) 전경, 예시 10절, p.313

93) 전경, 교운 제1장 19절, p.161.

94) 전경, 예시 12절, p.313

것이 곧 무위이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 닿는 대로 새 기쁨이 열리리라.”<sup>95)</sup> 하여, 신도를 바르게 하고 신의 도움을 받아야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개혁은 원시반본(原始返本)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원시반본이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로서, 도의 근원으로의 회귀를 뜻한다. 우주가 처음 생성된 상태인 무극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우주가 생성된 시초에는 완전한 이상세계이었으나, 상극원리에 의해 원한이 쌓여 진멸의 위기에 있는 현세를 원래의 이상세계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원시반본은 후천세계가 열리는 것으로, 개혁에 의해 선경이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 V. 結論

종교는 사람들이 그 종교의 교리가 참다운 진리이며, 교리를 실행하는 것이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신념에 의해 형성된다. 종교란 믿음과 의식으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로서, 이러한 종교적 믿음을 통해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종교 생활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자에게 의존하여, 절대자를 숭배하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참다운 삶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행해야 할 기본으로 誠·敬·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三要諦라 한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信은 창시자에 대한 존경과 숭배, 그리고 가르침인 교리를 믿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순사상은 창시자인 강증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종통을 계승한 조정산, 박한경에 의해 종교적 체계를 갖추어 왔다. 종교란 본래 창시자를 숭배하고 그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 참다운 인간의 삶이라는 신념을 기초로 형성되는 것과 같이, 대순사상의 信은 창시자를 숭배하는 굳은 믿음을 갖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信의 의미는 대순사상이 지

95) 전경, 예시 73절, p.334.

향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덕목으로, 대순사상이 인류 구원의 대도(大道)이고,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다.

그리고 대순사상에서 믿음은 의심을 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며, 마음을 속이지 않으며, 온갖 정성을 기울여 의도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믿도록 하는 것이며, 말을 좋게 하여 언덕을 쌓으며, 仁善을 행하여 스스로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 등을 뜻한다.

종교의 신념체계는 세계관(우주관), 신론, 인간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순사상의 세계관은 우주는 天地人 삼계(三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삼계와는 달리 신들의 세계인 신명계도 강조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세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자연법칙은 구천상제의 창조와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다.

대순사상에서는 선천세계와 후천세계로 구분하여, 선천세계는 인류가 창생되어 온 이래 현재까지를 말하고, 후천세계는 새로이 도래할 미래세계를 말한다. 선천세계는 악과 불의가 난무하는 현실세계이고, 후천세계는 선과 정의가 구현되고 인류가 영생할 수 있는 이상세계로 설명한다.

대순사상의 神觀은 창시자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일신론적(一神論的)이며, 신과 인간은 동일한 성격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이 죽으면 신이 된다는 신인즉일설(神人卽一說), 신은 인간 행동을 심판하는 존재이며, 인간의 능력과 생활태도를 판단하여 적절한 보상을 한다고 하며, 우주 만물은 신의 조화에 의해서 존재하며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모든 신은 서로 다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간세계와 신명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대순사상은 인간은 선령신(조상신)들의 지극한 정성에 태어났으며, 神이 인간으로 화신(化身)한 것이기도 하며, 인간을 음양 복합체로 정신과 육체를 소유한 존재로 보며, 욕망을 가진 존재로서 욕망을 이루지 못하면 원한을 갖게 되며, 인간은 수련하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은 각기 운수가 정해져 있는데 성심을 갖고 스스로 노력하여야 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죄악을 저지르면 벌을 받으며, 인간은 신과 공존하면서 교류하는 존재이고, 인간이 잘되고 못되고는 정성에 달려 있으며, 우

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인간이라 한다.

대순사상의 신념체계의 유형은 祈福, 求道, 開闢이 복합되어 있다. 대순사상은 祈福的이다. 대순사상은 인간이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생활을 하여 바르고 참된 마음을 갖고 인격을 완성하고 언덕을 쌓고 윤리적인 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인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운수가 열려도 성심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순사상은 求道的(修道的) 信念을 갖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앙을 道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修道라 하여, 구도적이다. 신앙생활을 수도라 한 것은 구도와 동시에 보다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수도는 엄격한 자기 수양을 하는 구도를 하는 동시에, 대순사상이 인간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완전한 신념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수도는 한 마음을 갖고, 신명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데, 수도는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은 開闢的이기도 하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선천세계는 인류를 포함한 만물이 진멸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상세계인 후천세계를 열기 위해서는 개벽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 대순사상의 개벽은 천지를 새롭게 만들고, 인간이 참다운 마음을 열어 윤리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완성하고,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겠다는 창조적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대순지침

大巡眞理會要覽

典經

論語

周易

권규식, 종교의 사회학적 이해(서울 : 이문출판사, 1997).

金芳漢, 언어학의 이해(서울 : 민음사, 1994).

김탁, 증산교學(서울 : 도서출판 미래향 문화, 1992).

김흥철, 증산교사상연구(이리 : 원광대학교 출판국, 2000).

盧吉明, “神과 人間의 因한을 抹消한다”, 趙明基 외 33인, 韓國思想의 深層 研究(서울 : 宇石, 1990).

송완용, 언어학 기초이론(서울 : 신아사, 1996).

沈佑燮, “中庸의 誠思想에 관한 研究”, 道源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 委員會, 東洋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 종로서적출 판주식회사, 1983).

安耕田, 甌山道の 眞理(서울 : 大原出版社, 4329).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서울 : 사회비평사, 1997).

이은봉, 종교세계의 초대(서울 : 志學社, 1985).

尹以欽, 韓國宗教研究 : 卷 I (서울:集文堂, 1986).

——, 韓國宗教研究 : 卷2(서울 : 集文堂, 1991).

張秉琳, 鄭漢澤, 心理學(서울 : 博英社, 1980).

黃善明, 宗教學概論(서울 : 종로서적, 1996).

拙稿,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的 價値”, 大巡思想論叢, 제2집 (大巡思想 學術院, 1997).

——, 神人調化의 思想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제3집 (大巡思想學術院, 1997).

——, “誠思想과 修道”, 大巡思想論叢, 제9집(大巡思想學術院, 2000).

Durkheim, Emile,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New York : The Free Press, 1965).

Sanderson, Stephen K., *Macrosociology* (New York : Harper & Row, 1988).

Tylor, Edward B., *Primitive Culture* (New York : Harper & Row, 1958).

Wallas, Anthony, *Religion : An Anthropological View*(New York : Random House, 1966).

Yinger, Milton J.,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New York : Macmillan, 1970).